

“불법 재판에 옥살이... 억울함 풀어주길”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법원이 이 빨간줄 좀 없애 줘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화(74·서귀포시 대정읍)씨는 세상 때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다. 1948년쯤 임씨의 아버지 임정야(당시 28세)씨는 토벌대를 피해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 발각돼 목포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임씨의 아버지는 7년간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됐다.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병들고 쇠약해졌다”면서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임씨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48년 4·3사건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7년간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는 걸 알게 됐다. 미리 알았으면 찾아뵙기라도 했을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8일 법원이 제주 4·3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다루는 심문을 시작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4·3행불인 유족 100여명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달라 호소했다.

제주지법, 어제 4·3행불인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 유족 349명 “명예회복 길 열어주길” 법원 향해 호소

행불인 재심여부 다루는 건 처음... 사망입증 등 쟁점

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었던 생존 수형인과 달리 행불인은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 상태’여서 재심 개시 여부를 다루는 심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4·3 생존수형인 18명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반면 행불인

유족은 어머니나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4·3 수형행불인들이 법적으로 사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도 쟁점 중 하나다. 유족들은 4·3 수형행불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제사까지 치르고 있지만 사망진단서 등 공식 문서상 사망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일부 수형인들이 가족들이 연

좌제로 피해를 볼까봐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실제 이름을 대지 않는 바람에 호적과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이들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도 쟁점으로 남았다. 앞으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을 추려 심문하고 나머지는 서면 제출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병들고 쇠약해졌다”면서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늘 고1부터 올해 첫 영어듣기평가

코로나19 여파에 연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2020학년도 제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제 출제를 위탁해 EBS교육방송을 통해 녹음·송출되며 매해 2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이번 영어듣기능력평가는 당초 4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6월로 연기됐다. 학사일정 상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 학교에서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평가 일정은 고등학교 1학년 6월 9일, 2학년 10일, 3학년 11일이다. 중학교는 1학년 6월 23일, 2학년 24일, 3학년 25일로 정해졌다. 듣기평가 방송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내외로 EBS FM 라디오(제주 107.3Mhz, 서귀포 104.9Mhz)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영어듣기능력평가가 듣기 대본, 문항, 정답은 시험평가 당일 오후 7시 이후 EBS 중학 사이트(mid.ebs.co.kr), EBS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에서 제공된다. 결과는 학교별로 평가에 반영되거나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전선희기자

학부모 연수 화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18~19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연수 대안으로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화상연수를 개설한다.

이번 학부모 화상연수는 화상회의 앱(ZOOM)을 활용해 비대면이지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6월 18~19일 2회기로 열리며 회기별 20명씩 총 4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자기주도학습, 놀이의 힘과 관련한

저서를 낸 교육평론가 김판수씨가 유아기와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과 토의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축선 원장은 “이번 화상연수는 교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고려해 학부모 연수부터 진행한다”며 “화상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낯선 경험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연수방법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달 10일 오후 5시까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문의 735-0532. 전선희기자

어려운 환경서도 꿈 키우는 청소년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맞아 청소년쉼터 김모군 등 표창 드론조종술 배워 취업 성공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분유 지원

서귀포보건소 대상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및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까지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 아 신청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

이면 첫째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였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유선손상 등의

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카드사에 따라 지정된 온라인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 현영희기자 yihyeon@ihalla.com

영과 병행하며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는 등 모범적인 생활로 표창을 수상했다.

오상근 보호상담원은 쉼터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모습과 끊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청소년 보호 및 자립에 공헌한 부분을 인정 받았다.

오 보호상담원은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게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되니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위기(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복지전문기관이다. 송문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Ora & Coffee 오픈!

제주 최초 LG Z:IN 창호전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LG PVC 발코니창호 (유리난간대)

LG Z:in AL 슬림3연동 중문

LG Z:in AL 스윙중문

LG Z:in ABS도어

*** 2020년 HIT 상품 ***

(발코니창, 시스템창, 중문, 도어, 유리등) 다양한제품 및 2020년형 신제품 비교 체험(인테리어, 가구 업체와 연계)

[주] 한진시스템
 제주대리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2015-07-05 · 금곡주동 창호공사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문의 TEL.711-5169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